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

구교준**
임재영***
최슬기****

본 연구는 행복에 대한 기존의 광범위한 연구를 행복의 개념과 측정, 결정요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 철학의 두가지 접근인 hedonism과 eudaimonism을 적용하여 행복의 개념과 측정에 관한 경제학, 심리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 전반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개인적 수준 뿐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논의를 소개하였다.

주제어: 행복, 삶의 질

I.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60 여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한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고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도 가입하여 많은 개도국들의

* 이 논문은 아산사회복지재단과 한국연구재단(NRF-2013S1A3A2053959, NRF-2013S1A3A2043324)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도시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관심분야는 지역개발, 혁신클러스터, 행복과 삶의 질 등이다(jkoo@korea.ac.kr).
***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보건경제, 보건정책, 인구고령화 등이다(jylimecon@korea.ac.kr).
****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인구, 세대, 사회의 질 등이다(chois@kdischool.ac.kr).

발전 모델로 칭송 받아 왔다. 최근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개편 결과에 따르면 전쟁 직후인 1953년 \$67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3년 \$26,205로 394배 증가했고, 전체 국민총소득(GNI)은 같은 기간 483억원에서 1,441조원으로 자그마치 29,833배나 확대되었다(아시아경제, 2014). 이와 같이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거둬 온 성과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눈부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를 질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면 그 동안 우리나라가 받아 왔던 찬사는 상당 부분 빛이 바랜다.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자료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의 주관적 만족도 혹은 행복의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행복도는 다른 나라들 국민들과 비교할 때 그리 칭찬할만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행복 지표라고 할 수 있는 Gallup World Poll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155개 조사 대상국 중 44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의 에라스무스 대학에서 전 세계 주요국가들을 대상으로 행복수준을 측정한 World Database of Happines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9개국 중 70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OECD 34개국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2위로 터키,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권을 형성하였다(이내찬, 2012). 한편 행복 연구에서는 행복수준을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이외에 현재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으로도 측정하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긍정경험지수는 조사 대상 143개국 중 118위로 더 암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한국갤럽, 2014). 행복도 뿐 아니라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OECD 1위인 우리 사회의 민낯은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장밋빛으로만 비치는 양적 평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단면을 통해서 바라 본 이와 같은 객관적 경제상황(혹은 소득수준)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혹은 행복) 간의 불일치 현상은 Easterlin 패러독스라는 이름으로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다(Easterlin, 1974). 예를 들어 지난 195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및 여러 유럽 국가들의 1인당 소득은 2-3배 혹은 그 이상 증가하였지만 자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Clark, Frijters, & Shields, 2008; Easterlin, 1995; Layard, 2006). 이러한 현상은 특정 국가의 시계열 자료에서 뿐 아니라 특정 시점의 국가 간 횡단면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즉 기본적인 삶의 요건이 충족된 사회에서는¹⁾ 평균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삶의 만족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소득

이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라 하더라도 소득이 높은 국가 보다 반드시 평균적으로 덜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Easterlin이 일찍이 지적한 소득과 행복 간의 이러한 역설적 관계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지난 반 세기 동안 우리 사회의 합의된 목표 중의 하나는 소득 증대였다. 파이를 키우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위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3만불 달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합의된 정책목표의 이면에는 소득증가가 국민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깔려 있다. 만약 객관적 소득수준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 사이에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득 증대라는 정책목표는 심각한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함수는 행복이며, 소득은 단지 목적함수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시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자원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국민의 전반적인 행복수준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 사회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

Easterlin 패러독스가 주는 함의는 우리 사회의 정책담론의 초점이 수단적 성격을 가진 부나 소득이 아닌 좀 더 직접적인 목적함수라고 할 수 있는 행복으로 옮겨가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던 7차 경제사회개발계획에 국민의 후생복지 증진이라는 목표가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을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비전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현실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행복이란 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의 관심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정학, 정책학 분야의 연구에서 행복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경우는 손에 꼽을 만큼 적은 편이다. 물론 현재 경제학에서는 행복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개척될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이 또한 최근의 현상이다. 행복이란 주제가 이와 같이 최근까지 학계에서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우창빈, 2013). 첫째, 사회과학이 가지는 실증주의적 전통으로 인해 인간의 주관적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 행복이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둘째, 주관적 감정의 영역을 다루다 보니 행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셋째, 개념이 불명확하다 보니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즉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1) 선행연구에 의하면 절대빈곤수준(absolute breadline)을 넘어서는 1인당 국민소득 \$15,000 이상이 되면 행복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의 중요성이 점차 사라진다(Frey & Stutzer, 2000b).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 정의와 측정의 혼란이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 행복의 학문적 연구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념 정의와 측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행복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려 한다. 또한 행복을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적함수라고 할 때 행복수준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여야 한다는 대안 제시 보다는 그 이전 단계로서 그 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복에 대한 이러한 이론적 고찰은 앞으로 행복이라는 주제가 좀 더 폭넓게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 다뤄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II. 행복의 정의

행복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크게 행복의 근원(locus)을 인간 내적인 것에서 찾느냐 혹은 외적인 것에서 찾느냐의 문제와 행복의 성격(focus)을 주관적인 만족이나 쾌락으로 볼 것인가(hedonism) 혹은 개인이 가진 가치나 역량의 추구로 볼 것인가(eudaimonism)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논의는 역사와 시대 상황이 다분히 반영되어 어느 시기를 보느냐에 따라 논의의 초점이 변화하여 왔으나, 후자의 논의는 서로 다른 철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두 가지 견해가 병존하여 왔다. 행복의 정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심리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 분야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행복의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행복이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단순하게 정의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념적 특성이 행복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향후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 행복을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다차원적 성격을 가진 행복의 개념적 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어떤 차원의 개념을 중심으로 행복 연구가 이루어지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행복의 근원(locus)에 대한 논의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첫 번째 질문은 행복이 과연 어디로부터 기인하

는지, 즉 행복의 'locus'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고민의 출발점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Democritus, Socrates, Aristotle 등 그리스 철학자들은 행복이란 무엇이고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였다. 특히 그 당시 행복의 근원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의 논의와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당시에 행복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그리스 시대를 거쳐 중세까지 이어진 행복의 고전적 의미는 철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행운'이라는 단어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Kesebir & Diener, 2008; Oishi, Graham, Kesebir, & Galinha, 2013). 이는 행복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 'eudaimon' 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이는 'good'의 의미를 가진 'eu'와 'god' 혹은 'spirit'의 의미를 가진 'daimon'의 합성어로서 'good god' 혹은 'good spirit'이 함께한다는 것을, 즉 행운이 함께 함을 의미한다(McMahon, 2006). 따라서 고대 그리스 시대를 거쳐 중세에 이르기까지 행복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찾아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신 혹은 하늘로부터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되었다. 고전에 드러난 행복에 대한 이해는 동양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중국 철학의 중요한 고전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서도 복(福)을 운이 좋은 혹은 장애물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Lu, 2001).

물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행복관에도 다소 간의 차이는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Socrates는 지식과 지혜, 아름다움에 대한 교육을 통해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여 행복의 근원이 적어도 일부는 인간 자신에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Oishi et al., 2013). Socrates의 영향을 받은 Aristotle도 행복의 핵심인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삶(virtuous life) 축복 받은 삶 혹은 행운이 함께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하여 행복의 근원으로서 외적인 요인을 지적하면서도, 동시에 행복은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질 수 있다고 하여 행복을 가져오는 인간 내적인 요인 또한 강조하였다(Kesebir & Diener, 2008). 즉 그리스 시대의 행복관은 인간 외적인 면에 초점이 있었음에도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내적인 면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빠뜨리지 않고 있다.²⁾

2)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던 Socrates와 Aristotle의 철학을 자칫 인간 내적인 면을 통해 행복을 찾는 접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인간 외적인 축복 혹은 행운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다는 측면에서 이들의 주장은 오히려 인간 외적인 면을 통해 행복을 찾는 접근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Nussbaum 1986). 같은 맥락에서 Nussbaum은 또한 Aristotle이 그리스어로 축복이나 행운을 의미하는 단어인 'makariotes'를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

행복의 근원을 인간 외적인 면에 치중해서 바라보던 고전적인 관점은 중세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중세의 철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중시했던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행복의 중요한 일부라고 받아들였으나, 이를 행복의 근원 혹은 본질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기독교의 절대적 영향을 받았던 이 시기의 철학자들은 행복의 근원을 영적인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행복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닌 믿음과 신의 축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인간적인 세상의 행복을 얻을 수는 있으나 이는 영원한 것이 아니며 영원한 궁극의 행복은 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Tatarkiewicz, 1976).

고대와 중세시대를 거치며 형성된 행복에 대한 고전적 관점의 특징은 행복의 근원을 인간 자신이 아닌 하늘 혹은 신이 허락하는 행운과 축복이라는 외적인 면에서 찾는다는 점과, 따라서 행복은 이러한 행운과 축복이 허락된 선택된 소수에게만 가능하다고 여겼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전적 행복관은 13세기 신학자 Tomas Aquinas에 와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McMahon(2006)에 의하면 Aquinas는 인간이 신을 닮고자 하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 행복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행복은 더 이상 신에 의해 선택된 소수만의 것이 아니고 부분적이거나 종교적 믿음에 바탕을 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인간 자신의 노력에 의해 보편적으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Aquinas의 견해는 16, 17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세속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르게 되면서 개인의 쾌락이 행복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심지어는 쾌락이 행복과 동일시되기에 이른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행복의 근원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인간의 내적인 면을 중심으로 한 논의로 옮겨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가 18세기에 있었던 미국의 독립선언과 19세기 초반에 등장한 공리주의이다(Kesebir & Diener, 2008). 1776년에 발표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인간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생명, 자유와 함께 행복추구를 들고 있다. 또한 공리주의는 이러한 행복의 실체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행복은 곧 효용이고 이는 곧 쾌락의 극대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표적인 공리주의자 Bentham이 모든 개인이 자신의 쾌락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달성될 수 있는 사회를 바람직한 사회라고 강조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날 행복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

'eudaimonia'와 자주 혼용하였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행복의 보다 구체적인 실체는 고전적인 행복관에서 중시하는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삶과 같은 규범적인 내용이기 보다는 공리주의에서 주장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쾌락과 같은 다분히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으로 변화하기에 이르렀다.

2. 행복의 성격(focus)에 대한 논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행복의 근원에 대한 질문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아왔던 주제는 행복의 성격 혹은 주된 내용에 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 역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그러다 보니 앞의 행복의 근원에 대한 논의와 다소 중복이 존재한다), 그 영향은 오늘날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 행복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본 절에서는 행복을 바라보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두 가지 접근인 hedonism과 eudaimonism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등 현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쳐왔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1) Hedonism에 기초한 접근

행복의 성격에 관한 질문은 어떤 삶을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는냐라는 질문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고대 그리스 철학은 이에 대하여 매우 상이한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Ryan & Deci, 2001). 우선 첫 번째는 행복은 쾌락으로부터 기인하며, 따라서 좋은 삶이란 육체적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고 얻는 삶이라는 입장이다. ‘hedonism’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주장은 기원은 기원전 4세기에 인간 삶의 목적은 쾌락의 전체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쾌락 이외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Aristippus에서 찾는다(Tatarkiewicz, 1976). 이와 같은 쾌락 중심의 세계관은 헬레니즘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고통의 부재와 인간의 공동선으로서 쾌락을 주장했던 Epicurus를 들 수 있다.

행복의 핵심을 쾌락으로 파악했던 고대 그리스의 hedonism은 근대에 이르러 심리학과 경제학 분야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우선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개념적 모호성을 비판하고 쾌락이나 고통으로 표현되는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Diener, 1984). 주관적 안녕이란 개인이 삶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감, 긍정적

인 감정의 존재와 부정적인 감정의 결여 상태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정의를 통하여 행복은 쾌락과 고통으로 구분되는 보다 구체화된 개념으로 진화하게 된다.³⁾ 특히 주관적 안녕의 하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삶에 대한 만족감(인지적인 측면의 평가)과 긍정적 감정 혹은 부정적 감정(정서적인 측면의 평가)에 대한 평가는 전적으로 개인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개념화를 통해 행복이 가지는 주관성과 인간 후생의 평가 주체로서 개인이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Haybron, 2007). 행복은 hedonism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뒤에서 언급할 eudaimonism의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는 등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다양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과학적 연구를 위한 개념의 명확한 정의와 조작화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심리학에서 새롭게 등장한 주관적 안녕 개념은 기존의 행복 개념이 가지고 있던 모호성을 극복하고 행복 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같이 인간의 후생을 hedonism과 거의 동일시하고 고통과 대비되는 정신적 육체적 쾌락에 초점을 두어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조류를 hedonic psychology라고 부른다(Kubovy, 1999).

Diener, Kahneman 등에 의해 개척된 hedonic psychology는 이전의 전통적 심리학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다. 기존의 전통적 심리학이 인간의 마음이 가지는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예를 들면 정신분열증,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병적 현상) 어떻게 하면 인간 마음 속의 어두운 면을 최소화하거나 없앨 것인지에 주로 관심이 있었던 반면, 197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심리학 사조는 인간 마음의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반드시 기쁨이나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연구의 초점을 인간 마음의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Deci, 1975; Diener, 1984).⁴⁾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부정적인 심리와 긍정적인 심리는 전혀 다른 기제에 의해 작동하며, 따라서 부정적인 심리에 대한 연구만을 가지고는 행복과 같은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관적 안녕 개념은 바로 인간의 긍정적인 심리를 쾌락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Kahneman et al.(1999)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관적 안녕에 바탕을 둔 hedonic psychology를 “the study of what makes people

3) 주관적 안녕에서 의미하는 쾌락은 단순한 수준의 육체적 혹은 정신적 쾌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목적 달성을 통해 얻어지는 성취감 등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Diener et al., 1998).

4) Myers & Diener(1995)에 의하면 부정적인 심리상태에 대한 연구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연구의 비율이 17대 1에 이를 정도로 불균형이 심했다.

pleasant and unpleasant (p. ix)”라고 정의하면서 인간의 후생을 hedonism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심리학에서의 이와 같은 변화는 행복의 개념과 연구의 목적함수를 hedonism에 기초한 주관적 안녕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분명하게 함으로 해서 행복 연구의 과학화에 뚜렷한 기여를 하였다.⁵⁾ hedonic psychology의 새로운 접근은 과연 진정한 인간의 후생을 주관적 안녕을 통해 얼마나 잘 측정할 수 있는냐의 논쟁을 끊임없이 불러 일으켰으나 지난 수십 년 간 행복 연구에서 가장 뚜렷한 연구 경향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는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인간의 기본적인 천부인 권으로 정의한 미국 독립선언 이래로 뚜렷해진 “more as feeling good than being good (p. 65)”으로 행복을 바라보는 시대적 사조를 잘 반영한다고도 할 수 있다 (McMahon, 2006).

한편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고전 경제학은 hedonism을 기반으로 하는 공리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공리주의는 행복을 쾌락을 통해 얻어지는 효용과 동일시하고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사회구성원들의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을 상회하는지 여부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hedonism의 전통을 충실히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Bentham의 유명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구절에서도 잘 드러난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인 후생은 아주 오랫동안 공리주의의 행복 개념과 거의 동일시 되어 왔으며,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규범적 원리 중의 하나인 ‘효용극대화’는 Bentham의 공리주의적 규범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공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Bentham이나 Mill이 동시에 그 시대를 이끌었던 경제학자였다는 점은 공리주의와 경제학이, 다시 말하면 hedonism의 전통과 경제학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준다 (Posner, 1979).

물론 Smith와 Richardo로 대표되는 고전 경제학 혹은 오늘날의 정치경제학에 가까운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거시적 분석에서는 hedonism이나 공리주의의 흔적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이는 당시 경제학의 주관심사가 부의 창출과 축적 혹은 소득배분 등 정치경제 시스템과 관련된 거시적인 주제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

5)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데 있어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심리상태 보다는 긍정적인 심리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심리학의 사조는 positive psychology라는 새로운 분야로 발전한다. 초기 positive psychology는 hedonism에 기초한 접근을 바탕으로 출발하였으나, Seligman (2002) 등에 의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면서 점차 eudaimonism에 기초한 접근으로 변화하여 현재는 eudaimonism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Robbins, 2008). 따라서 Hedonic psychology는 바로 이러한 positive psychology의 접근과 대비되는 대안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 고전 경제학 시대는 특히 개념의 추상화를 통해 경제학의 과학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던 시기로서, 이를 위하여 물질적 부와 같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대상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에 Menger와 Walras를 중심으로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한계혁명이 도래하면서 큰 변화를 맞는다. 한계혁명을 통해 형성된 신고전 경제학은 물질적 부의 축적과 분배 같은 거시적이고 객관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정치경제체제 안에서 활동하는 개인의 행태와 의사결정 과정 등과 같이 미시적이고 주관성이 강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선호, 효용, 효용극대화 와 같은 공리주의에 기초한 개념들이 경제학의 중심에 자리잡게 되었다(Pastinetti, 2005). 그러나 신고전 경제학은 효용 개념을 통해 hedonism에 기반한 행복을 암묵적으로 이론체계에 포함시켰을 뿐 심리학에서와 같이 이를 직접적으로 탐구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첫째, hedonism 전통과 맞닿아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행복이라는 주제가 주류 경제학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학이 가지는 환원주의적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 한계혁명을 거치면서 확립된 경제학의 수리적 분석 틀은 모든 현상을 이기적인 인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하려 하였으며, 따라서 행복이라는 다차원적인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따랐던 것이다. 예를 들면 Phelps(2001)는 미국에서 관찰되는 행복의 패러독스 현상은 미국 사회에서 이타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행복이 가진 이러한 관계적인 속성(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얻음)은 로빈슨 크루소의 예에서와 같이 철저하게 독립적인 개인을 가정하고 있는 경제학의 분석 틀 안에서는 분석이 어려워진다. 둘째, 주류 경제학 이론은 매우 강한 실증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눈으로 보거나 만지는 등 객관화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없어 주관의 영역에 속하는 행복은 비과학적인 성격을 가지며 그 결과 연구 대상에서 쉽게 제외되었던 것이다. 특히 신고전 경제학의 수요이론에서 개인 간의 비교를 위한 효용의 명확한 계량화는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 효용, 수요곡선 등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개인의 현시된 선택 행위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Frey & Stutzer, 2002b).

이와 같이 hedonism적 전통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행복과는 거리가 있었던 경제학 분야에서 행복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탐구가 시작된 것은 경제학자들이 심리학에서의 행복 연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이다. Easterlin(1974)과 Scitovsk(1976)는 바로 경제학에서의 이러한 연구 경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Easterlin은 앞에서도 소개하였듯이 심리학자들이 주관적 안녕으로 정의하였던

행복수준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활용하여 국가간 횡단면 자료에서 소득과 행복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의 시계열 자료에서는 둘 간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림을 보여주었다. Easterlin 패러독스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그 이후 경제학 뿐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기폭제가 되었다. 경제학 분야에서 행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Easterlin 패러독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경제학이 가지는 hedonism 전통과 환원주의가 다차원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행복 연구에 적용됨으로 나타난 모순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는 행복을 정의하고 분석하는데 좀 더 폭 넓은 대안적인 시각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한편 Easterlin 이후 많은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분야의 연구들이 기존의 객관적 방법이(선택을 통해 현시된 선호) 아닌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행복)을 통해 효용을 대리 측정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Fordyce(1988)는 다양한 형태의 주관적 만족 지표들이 상당히 높은 연관성을 가짐을 보여주었다. Sandvik(1993)등은 요인분석을 통해 이들 지표들이 하나의 개념을 일관성 있게 대표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Ehrhardt(2000)등의 연구는 이들 지표가 안정적이며, 상황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내려진 결론은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으로 표현되는 주관 지표가 인간의 후생과 효용을 측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타당한 측정 도구라는 점이며, 이는 비로소 주관적 안녕에 기초한 hedonic한 행복 연구를 경제학의 중심에 한 발짝 더 가깝게 가져다 놓았다.

Hedonism에 바탕을 둔 경제학 분야의 행복 연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왔던 질문 중의 하나는 바로 Easterlin이 제시한 '행복 패러독스'이다. Kahneman, Frey 등으로 대표되는 대부분의 행복경제학자들은 그 해답을 적응(adaptation)과 열망(aspiration), 쳄바퀴효과(treadmill effects) 등의 개념을 통해 찾고 있다(Bruni & Porta, 2005). 우선 Easterlin(2001)은 심리학의 set point 이론에 기초하여 개인의 소득, 지위 등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로부터 오는 주관적 만족감은 개인이 변화에 적응해감에 따라 점차 사라지며, 얼마 지나지 않아 변화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된 개인이 갑자기 늘어난 소득으로 인해 느끼는 만족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며, 좀 더 드라마틱한 반대의 경우로 사고로 인해 팔이나 다리를 잃은 개인이 느끼는 상실감도 오래지 않아 극복된다. Kahneman(1999)은 개인 수준에서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가 적응

과정으로 인하여 영속적인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을 ‘individual treadmill effects’ 혹은 ‘hedonic treadmill effects’라고 개념화하였다. 한편 Layard(2006)등은 사회수준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가지는 소득, 지위 등의 상대적인 위치가 개인의 주관적 만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개인이 가지는 절대적 위치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소득, 더 나은 지위를 얻으려는 상대적 열망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의 소득이나 지위가 향상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나 지위가 똑같이 변한다면 주관적 만족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social treadmill effects’에 빠지게 된다.

2) Eudaimonism에 기초한 접근

최근의 심리학과 경제학의 행복 연구가 hedonism에 바탕을 둔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행복을 hedonic한 현상으로 정의하는 행복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은 바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hedonism과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비롯된다. 예를 들어 Aristotle은 쾌락에 바탕을 둔 hedonic한 행복이야말로 인간을 쾌락의 노예로 만드는 세속적이고 저차원적인 행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그는 또한 행복이란 진정으로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virtuous life)을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yan & Deci, 2001). Aristotle 뿐만이 아니고 동시대의 많은 철학자들이 공유했던 생각 중 하나는 도덕(morality)과 덕성(virtue)이 결합된 좋은 삶이란 불가능하다는 점이었다(Kesebir & Diener, 2008). 심지어 대표적인 쾌락주의자였던 Epicurus조차도 정의로움과 명예로움에 결합된 행복한 삶이란 생각하기 힘들다고 언급할 정도로 eudaimonic한 삶의 가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 시대를 통틀어 넓게 퍼져 있었다.

한편 hedonism의 전통이 강한 오늘날의 행복관과 대비되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행복관은 중국 고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행복이란 단어가 중국어에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중국 고대 문헌에서 등장하는 가장 유사한 단어는 ‘복(福)’이다. ‘복’ 개념의 등장은 중국 최초의 고대 왕조로 알려진 상(商)나라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인간이 가진 욕망의 실현을 신에게 갈구하는 의미를 가진다(Bauer, 1976). 고대 중국 철학자들에게 행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논어와 같은 유교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행복에 이르기 위해 재물의 축적 보다는 끊임없는 자기수양과 이를 통한 덕성의 개발을 중시했다는 점이다(Lu,

2001). 특히 세속적 욕망을 통제하는 자기절제와 성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을 행복의 요체라고 여겼는데, 이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eudaimonic한 삶의 가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Eudaimonism에 의하면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 이를 통하여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이 가져다 주는 기쁨(eudaimonic pleasure)은 단순하고 순간적인 쾌락(hedonic pleasure)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는 가장 큰 이유는 후자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차원적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반면 전자는 의미와 가치에 몰입된 행위와 삶이라는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인(holistic) 접근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이다(Waterman, 1993). 이와 같이 의미와 가치, 성장과 발전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eudaimonism에 기반한 접근은 심리학과 경제학 분야의 행복 연구에서 앞 절에서 언급한 hedonic psychology나 신고전파 경제학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으로 이어진다.

우선 심리학 분야에서는 hedonic pleasure를 대변하는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 개념에 대비되는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개념이 새롭게 소개되었다. 심리적 안녕이란 행복을 단순히 쾌락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성장과 발전, 그리고 이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한다(Ryff, 1995; Ryff & Singer, 2000). 따라서 심리적 안녕 개념은 쾌락에 초점을 둔 일차원적 주관적 안녕 개념에 비하여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Ryff and Keyes(1995b)는 심리적 안녕을 자율성(autonomy), 성장(growth), 자기긍정(self-acceptance), 삶의 목적(life purpose), 탁월성(mastery), 긍정적 관계(positive relatedness) 등의 여섯 가지 측면을 통해 발현된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심리적 안녕에 바탕을 둔 행복의 측정은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Ryan and Deci(2000b, 2001)가 주장한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은 심리적 안녕의 핵심 요인으로 자율성(being autonomous), 역량(being competent), 관계(being related)를 제시하고 단순한 쾌락이 아닌 자아실현을 통한 심리적 만족이 행복의 요체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 Seligman(Seligman, 2002;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등을 중심으로 positive psychology라는 분야가 확립되면서 심리학에서 eudaimonism의 시각으로 행복을 바라보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Positive psychology는 인간이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과 성격적 특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

야로, 기존 심리학이 지나치게 인간 심리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hedonic psychology와 유사한 출발점을 가진다. 그러나 positive psychology는 주류 심리학으로부터는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했던 humanistic psychology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음으로 해서 hedonic psychology와는 뚜렷하게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Maslow(1943, 1971), Allport(1961) 등으로 대표되는 인문심리학자들은 Aristotle의 덕성이론(virtue theory)을 근거로 개인이 자아실현을 통해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바람직한 삶이라고 보고 이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러한 접근은 자율성, 개인의 성장, 삶의 목적 및 자아실현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positive psychology 이론체계의 근간으로 자리잡고 있다(Robbins, 2008). Rogers(1961)가 eudaimonism의 측면에서 자아실현에 이른 개인을 설명하면서 제안한 ‘fully functioning person’ 개념은 양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fully functioning person’은 삶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이 가지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자기 삶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자아실현에 이른 개인을 의미하는데, 이는 Peterson & Seligman(2004)이 eudaimonic well-being에 이른 개인을 설명하는 특성들과 거의 일맥상통한다. 이와 같이 humanistic psychology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positive psychology는 따라서 Aristotle의 eudaimonism의 색깔을 다분히 가지고 있으며, 이는 hedonic psychology와 분명히 구분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

Seligman 등을 중심으로 발전된 positive psychology의 행복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은 이를 현실세계에서 확인하려는 다양한 실증연구로 이어졌다. 예를 들면 Compton et al.(1996), King & Napa(1998), MacGregor & Little(1998) 등은 행복을 hedonic한 측면과 eudaimonic한 측면에서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두 개념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Peterson et al.(2005)도 주관적인 심리적 만족감(혹은 쾌락)이 반드시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삶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므로 심리적 만족감을 극대화하려는 개인의 동기는 개인의 진정한 안녕감(well-being)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행복을 정의하는 positive psychology의 이러한 관점은 고대 그리스 시대의 미학과 철학 연구로 잘 알려진 Tatarkiewicz의 행복관과 일맥상통한다. Tatarkiewicz(1976)는 행복을 ‘justified satisfaction of life’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마약의 사용과 같은 순간적인 단순 쾌락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행복을 의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제 3세계 여성들이 보이는 체념적 삶의 만족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진정한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 분야에서의 행복 연구는 효용극대화로 대변될 수 있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잘 보여주듯이 hedonic한 측면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쾌락을 통해 얻어지는 효용을 행복과 동일시했던 공리주의적 접근은 신고전 경제학이라는 주류 경제학에 접목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전통은 행복을 대변하는 주관적 안녕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행복경제학이라는 경제학의 새로운 연구 분야로 이어져왔다. 이런 흐름을 고려할 때 eudaimonism을 배경으로 한 경제학의 행복 연구는 주류 경제학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Eudaimonism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띠는 경제학 분야의 행복 연구는 노벨상을 수상한 Amartya Sen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Sen은 삶의 질에 대한 논의에서 자원이나 후생을 중심으로 한 기존 이론과는 차별화되는 역량(capability) 개념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이론체계를 확립하였다. 역량이론은 불평등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Sen(1980)은 이제는 고전이 되다시피한 'Equality of what'이라는 글을 통해 공리주의와 Rawls의 불평등 이론을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서 역량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삶의 질과 평등 개념을 제시하면서 역량이론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였다. 역량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역량의 기본 개념과 성격 등에 관해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역량이론은 경제학, 정치학 분야의 몇몇 학자들이 제3세계 여성들이 선진국의 남성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체념적으로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삶에 만족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구교준 외, 2012). Sen(1999)과 Nussbaum & Sen(1993)은 이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기본적인 물리적 요소들이 결여됨으로써 심각하게 훼손되고 그로 인해 삶에 대해 체념적으로 만족하는 현상은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한 행복과 삶의 질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한계점이라고 지적하고, 개인이 다양한 삶의 방식 가운데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객관적 물리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역량이론을 통해 역설하였다.

역량이론에서는 특히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건강을 유지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며,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구교준 외, 2012). 즉 좋은 삶이란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실현시키는 삶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역량 접근은 개인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eudaimonism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량이론이 Aristotle

의 철학에 그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도 역량이론과 eudaimonism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Sen은 특히 개인이 가치를 두고 추구하는 행위나 상태를 삶의 기능(functioning)이라고 개념화하였는데, 이는 아직까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바람직한 삶의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회의 집합(opportunity set of achievable potential functionings)을 삶의 역량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삶의 기능 개념과 함께 Sen의 역량 이론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Robeyns, 2005).

한편 이러한 역량은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효용이나 후생 혹은 분배 논의에서 Rawls나 Dworkin이 강조하는 불평등의 대상인 재화나 자원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개념으로 이러한 기존 이론들과는 삶의 질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Sen, 1980). 예를 들어 재화나 자원은 결국 개인이 가치를 두고 있는 행위나 상태, 즉 삶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데, 기존의 접근은 동일한 자원의 투입이 있더라도 이들을 삶의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개인이나 사회의 능력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보다 본질적인 기능의 불평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삶의 질을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통해 대변하는 후생 중심의 접근에서도 개인의 선호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수준의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기 위하여 요구되는 재화의 양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흔히 지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삶의 질을 위한 투입에 해당하는 자원이나 재화 혹은 그로 인한 산출에 해당되는 효용이나 후생이 아닌 아직 현시되지 않은 기회의 집합으로서 삶의 역량을 통해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삶의 역량 접근의 요체이다.

III. 행복의 측정에 대한 논의

행복을 연구하는데 있어 연구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행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다분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뿐 아니라 과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의 영역이 아닌 감정의 영역에 속해 있음으로 하여 여러가지 측정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학에서는 행복이 오랜 동안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심리학에서는 행복을 측정하는데 있어 뇌파와 같은 객관적 생리 신호를 사용하는 접근이 사용되기도 하였다.⁶⁾

행복의 측정과 관련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구분할 수 있

다. 우선 첫째는 주관적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물리적 조건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다. 흔히 'good life movement'라고 불리는 이러한 접근은 소득, 소비, 교육, 주거 형태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을 삶의 투입으로 보고 행복은 이를 통해 달성되는 산출이라고 간주한다. 투입을 중심으로 행복을 측정하려는 접근은 따라서 어떤 투입이 좋은 삶으로 이어지는지 고민하고 그 해답에 따라 행복에 대한 측정을 달리한다. 이러한 노력의 출발점은 1930년대에 Ogburn 등을(Ogburn, 1935; Ogburn & Jaffe, 1936) 중심으로 시작된 삶의 질의 지표에 대한 연구들로부터 찾을 수 있으며, 이는 1960년대에 붐을 이루었던 삶의 질 중심의 행복 연구로 이어졌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Sen의 역량이론의 영향으로 건강이나 교육과 같은 개인수준의 요인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자유, 사회자본, 노동환경 등 사회수준의 요인들도 좋은 삶의 중요한 지표로 행복 연구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⁷⁾

행복의 요체가 만족감이라는 개념으로 대변되는 개인의 주관적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투입을 중심으로 행복을 측정하려 하는 이러한 접근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우선 주관적 감정의 영역에 치우친 행복의 측정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제3세계 여성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객관적인 삶의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해 체념적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체념적 만족은 실제 경험의 부재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정규교육이 없는 사회라면 교육의 직접 경험이 없는 당사자들이 그 의미를

-
- 6)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은 행복이 단순한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적 심리상태가 아니라 뇌의 특정 영역의 활동과 직접 연관되어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한 현상임을 보여주었다(Kahneman, 1999). 행복에 대한 기존의 주관적 평가는 얼마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삶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memory bias'로 인하여 정확성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다. 따라서 행복의 측정을 위해 뇌파를 사용하는 이러한 생리학적 접근은 행복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비하여 척도의 정확성, 신뢰성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 했다고 할 수 있다.
- 7) 삶의 질과 행복 간에는 개념적 중복이 상당 부분 존재하며, 따라서 두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의 질'이라는 표현에 이미 함축적으로 좋다 혹은 나쁘다의 가치평가가 담겨 있으며, 삶의 질이 우수한 좋은 삶은 결국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암묵적으로 삶의 질 연구에서 도출된 좋은 삶과 행복을 연결 지으려는 경향이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삶의 질 개념은 개인의 전반적인 안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Veenhoven(2000, 2001)은 삶의 질의 영역을 1) 삶의 환경과 관련된 부분(주거환경과 같은 물질적 자원 및 민주주의, 자유와 같은 제도적 자원), 2) 삶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건강, 지적능력 등 독립된 개인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 3) 삶의 결과와 관련된 부분(삶을 영위하면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구분하고, 행복을 3)과는 직접적으로 중복되지만 1), 2)와는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교육의 부재라는 현실을 큰 저항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Tatariewicz (1976)가 행복을 'justified satisfaction of life'라고 정의하면서 비판했던 인식의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즉 인식의 오류로 인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은 행복이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런 경우 행복의 측정을 위해선 좀 더 객관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투입을 중심으로 한 행복의 객관적 측정은 전통적인 경제이론의 틀을 통해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주류 소비자이론은 개인이 느끼는 만족감을 '효용'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만족감 혹은 효용이 개인의 감정의 영역에 속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증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경제학은 효용의 측정을 위하여 개인에게 직접 묻는 방법이 아닌 다소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개인의 효용이 재화나 용역의 소비활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효용을 직접 측정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개인의 소비행태를 통해 효용을 추론하는 것이다. 감정의 영역에 속하여 과학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만족감을 직접 측정하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개인의 소비 의사결정을 통해 만족감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기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Frey & Stutzer, 2002b). 따라서 비슷한 맥락에서 투입을 중심으로 한 행복의 객관적 측정은 경제학적 접근에 잘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투입을 중심으로 하여 행복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수로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에서 발표하는 Human Development Index(HDI)와 Legatum Institute가 발간하는 Legatum Property Index(LPI)를 꼽을 수 있다. HDI는 Sen의 역량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예상수명, 교육정도, 소득수준에 기초하여 개별 국가들의 행복수준을 측정한다. LPI 또한 교육, 안전, 건강, 자유, 사회적 자본 등의 삶의 환경을 중심으로 개별 국가의 행복수준을 평가한다. HDI나 LPI 보다 좀 더 폭넓은 측면에서 행복을 측정하려는 지수로는 OECD의 Better Life Index(BLI)가 있다. BLI는 주택, 소득, 일, 커뮤니티,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안전, 일과 가정의 균형, 삶의 만족의 11가지 지표를 종합하여 개별 국가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지표의 상대적 중요성을 다르게 하여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다.

한편 행복을 측정하는 또 다른 흐름은 삶의 환경이 만들어내는 산출물로서 행복을 직접 관찰하려는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Bentham이나 Edgeworth가 정의한 행복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행복이란 개인이 매순

간 느끼는 주관적 효용의 총합으로 정의된다(Kahneman & Krueger, 2006). Kahneman(Kahneman, Wakker, & Sarin, 1997)등은 이와 같은 효용을 경험적 효용(experienced utility)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그 순간에 느끼는 쾌락이나 고통의 정도를 기록하는 경험샘플링(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개발하여 폭넓게 활용하였다(Csikszentmihalyi, 1990).

심리학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러한 접근의 대표적인 예는 앞 절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주관적 안녕 개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행복을 개인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상태(정서적 측면)와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지적 측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한다(Diener, Suh, Lucas, & Heidi, 1999). 이 중 긍정적인 감정은 흔히 즐거움, 만족감, 행복감, 자존감 등의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은 슬픔, 우울감, 수치심, 죄책감, 분노 등의 정도로 측정되며, 삶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과거, 현재, 미래 삶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흔히 평가된다. 즉 주관적 안녕으로 대표되는 행복은 하나의 단순 개념이 아니라 여러 현상이 혼합된 일종의 복합개념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측정도 단일 척도가 아닌 다양한 현상을 대변할 수 있는 복합적인 척도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주관적 안녕에 대한 측정을 이와 같이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으로 나누는 배경에는 중요한 이유가 존재한다. 주관적 안녕을 현재 시점의 심리적 상태로 측정하는 경우와(정서적 평가) 과거에 대한 평가로(인지적 평가) 측정하는 경우 결과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존재하며, 따라서 어느 한 쪽 측면에 치우칠 경우 개인의 주관적 안녕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게 된다. Kahneman(2005)은 대부분의 주관적 안녕에 대한 측정이 “당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와 같은 인지적 측면의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이와 같이 과거 경험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기초한 의사결정에는 편의(bias)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예를 들어 추위나 더위 등으로 고생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해당 지역에 대한 평가와 과거 그 지역에 살았던 기억을 바탕으로 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과거 경험의 가장 마지막 순간의 영향을 지나치게 크게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⁸⁾

8)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조사에서도 많은 경우 정서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가 나뉘어 이루어진다. 노동패널의 경우엔 정서적 평가 항목 없이 인지적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통계청사회조사와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는 최근 들어 두 가지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종합사회조사의 경우 2007년 조사에서부터 두 개념을 나누고 있는데, 인지적 평가 문항에 단순히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감을 평가하는 hedonic한 질문뿐 아니라 삶의 의미에 대해서 평가하는 eudaimonic한 질문도 포함하고 있어 학술적인 연구에서 잠재적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한편 주관적 안녕에 관한 연구들이 행복의 주관적 측면 중 hedonic한 부분에 대한 측정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면 eudaimonic한 부분의 측정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을 측정하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positive psychology의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Ryff & Keyes(1995a), Ryan & Deci(2000a), Seligman(2002)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들은 주관적 측면의 행복을 단순한 만족감보다는 삶의 목적, 성장과 자아실현, 긍정적 혹은 낙관적 경향 등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특히 Ryff and Singer(2008)는 긍정심리학의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 Aristotle의 논의와 최근의 임상심리학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eudaimonic한 행복의 6개 핵심 도메인을 자율성, 자기긍정,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 긍정적 관계, 개인의 성장으로 정의하고 각각의 도메인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Wiggins(1980)가 제시한 “construct-oriented approach to personality assessment”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⁹⁾ 흥미로운 점은 행복을 hedonic한 측면에서 측정하느냐 혹은 eudaimonic한 측면에서 측정하느냐의 결과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Keyes(2002) 등은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심리적 안녕 개념에 기초한 행복지수를 주관적 안녕 개념에 기초한 삶의 만족도 지수와 비교하여 둘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의 주관적 평가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접근(hedonic vs. eudaimonic)이 개념적으로는 뚜렷하게 독립된 성격을 가지지만 실제 측정에서는 상당 부분 중첩됨을 의미한다.

IV.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국가 간 횡단면 분석에서 왜 소득과 행복 간에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는냐는 Easterlin의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소득과 행복 간에 관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소득이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결정요인이기는 하지만 영향의 정도가 기대만큼 크지

9) Wiggins의 접근법은 각각의 도메인이 가장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서술하는 다수의 문장을 만들어 내적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문장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자기긍정은 1)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짐, 2)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포용하여 인정함, 3) 과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평가는 각 도메인별로 3점 척도에서 20점 척도까지 다양한 범위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Diener, Sandvik, Seidlitz, & Diener, 1993; Inglehart, 1997). 실제로 1인당 소득 기준 상위 30개국을 대상으로 소득과 행복수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0.6 남짓으로, 이는 행복의 전체변량 중 소득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구교준 외, 2014). 즉 국가 간 행복수준의 비교 분석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소득 이외에 다른 개인적 사회적 요인들을 통해 채워져야 한다.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행복의 정의에 대한 논의만큼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도 그럴 것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결정요인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논의는 행복을 정신적·육체적 쾌락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만족이라고 정의한 심리학의 hedonic psychology나 경제학의 효용 개념이 등장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크게 개인적인 요인과 국가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로 나뉘는데 개인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심리학과 경제학을 중심으로, 그리고 국가사회적인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1. 개인 수준의 결정요인

개인 수준에서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한 탐구는 나이, 성별, 유전자와 같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우선 많은 선행연구들이 다른 변수의 영향을 통제할 경우 대체로 40세 정도까지는 행복수준이 하락하지만 그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여 행복과 나이가 완만한 U자형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평균적으로 여성의 행복수준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Easterlin, 2001). 특히 흥미로운 점은 유전적 특성의 영향인데, Lykken(1999)은 일란성 쌍둥이들의 행복수준이 다른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란성 쌍둥이들보다 훨씬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전적 요인의 중요성을 입증하였다.

한편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변수로서 행복의 결정요인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중요 변수로는 소득, 건강, 교육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으며, 이들 변수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이 발표하는 Human Development Index(HDI)의 핵심 지표로도 사용되고 있다(Hopkins, 1991). 우선 첫째로 소득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곧 소비를 통한 효용증대를 의미하므로, 전통적인 경제이론의 틀

안에서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한 국가 내에서 특정 시점에 개인의 소득과 행복 수준에 대한 연구에서 뚜렷하게 보고되었다(Diener et al., 1993; Easterlin, 2001). 그러나 Easterlin (1995)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이 이러한 경향성이 동일한 국가의 시계열 자료에서는 관찰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Blanchflower & Oswald, 2004; Myers, 2000). 즉 시간이 지나면서 한 국가의 평균소득이 증가하여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또한 국가 간 실증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과 행복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도 여러 연구에서 관찰되었다(Frey & Stutzer, 2000b; Lane, 2000).

소득과 행복 간의 이러한 역설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경제학과 심리학의 경계선 상에서 고전경제학의 효용이론 틀을 깨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고전경제학의 효용이론에 의하면 나의 효용은 나의 소비에 의해 결정되며, 따라서 나의 소득이 나의 주관적 안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 즉 나의 효용 수준은 다른 사람의 소득과 소비로부터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행복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와 심리학자들은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개인의 성향에 주목하고 행복의 결정요소로서 절대소득이 아닌 상대소득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Clark et al., 2008; Clark & Oswald, 1998; Frank, 2005; Stutzer, 2004). 이들 연구에 의하면 행복은 개인의 절대적 소득수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서도 중요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접근은 바로 시계열 자료에서 나타나는 소득과 행복 간의 역설적 관계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면 상대소득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행복 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대소득의 영향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 상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최근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Alesina, Tella, & MacCulloch, 2004; Graham & Felton, 2006; Hopkins, 2008). 그러나 상대소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Vennhoven and Ouweneel(1995)와 Clark(2003) 등은 소득불평등과 행복 간의 관계가 기존의 믿음과는 달리 그다지 뚜렷하지 않음을 국가 간 비교 연구와 설문자료 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 이는 상대소득이 행복에 끼치는 영향도 절대소득

10) 상대적인 지위가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은 소득 분야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다. 교육이나 전반적인 사회적 지위의 상대적 수준도 행복수준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심지어 인간과 유사하게 집단생활을 하는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집단 내의 상대적 지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Brammer, Raleigh, & McGuire, 1994).

이 행복에 끼치는 영향만큼이나 뚜렷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향후 소득과 행복 연구의 방향성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한편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소득의 파생 변수로서 많이 연구되어 온 요인으로 '일(work)'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소득과 행복 간의 관계와는 달리 일의 유무는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일관된 연구결과이다(Frey & Stutzer, 2002a). 예를 들면 Clark & Oswald(1994)는 실업이 행복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이혼이나 친지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 상실과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실직이 가져오는 소득 하락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소득 하락분이 상당 부분 메워진 이후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행복에 끼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다시한번 보여줌과 동시에, 일을 통해 얻는 심리적 만족감의 원천이 소득 이외에도 일을 통한 성취감이나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암시해 준다.

둘째, 행복 결정요인으로서의 건강은 육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의미한다. 정신적 건강이 가지는 중요성은 심리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졌다(Diener & Diener, 1995; Diener & Lucas, 1999). 특히 흥미로운 점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정신적인 상태 혹은 긍정적인 성격이 개인의 행복수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동적균형이론(dynamic equilibrium theory)이라고 불리는 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절대적 행복수준이 있고 소득이나 일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은 절대적 행복수준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이를 영구히 바꾸지는 못한다고 한다(Headey & Wearing, 1989). 한편 Subramanian et al.(2005), Gerdtham & Johannesson(2001) 등도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행복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건강수준의 변화가 행복에 끼치는 영향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개인의 절대적 행복수준의 향상성을 뛰어 넘을 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몇몇 연구들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몸의 일부를 잃은 경우에도 사고 직후의 행복수준은 이전과 비교하여 많이 낮아지지만 수년 안에 사고 이전 수준의 행복수준으로 회복됨을 보여준 바 있다(Brickman, Coates, & Janoff-Bulman, 1978).

셋째, 행복의 결정요인으로서 교육의 영향은 다른 두 변수만큼 뚜렷하지 않다. 특히 정규교육이 행복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못하다는 연구결과는 쉽게 찾을 수 있다(Furnham & Cheng, 2000; Hartog & Hessel, 1998; Veenhoven, 1996).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비교성향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가 거의 동일하게 받는 정규교육은 개인의 상대적 지위의 향상과는 거의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행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교육의 범위를 정규교육 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 취미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다 폭넓게 해석하면, 행복과 의미 있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이다(Hartog & Hessel, 1998; Michalos, 2008).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육의 성격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정규교육 이외의 교육이 가지는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정규교육 이후의 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 취미교육은 모두 스스로의 필요 혹은 배움에의 욕구로 인해서 추구하는 교육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얻는 행복은 hedonic하기 보다는 eudaimonic한 성격을 가질 것이고, eudaimonic한 성격의 만족감은 상대적인 비교의 영향을 덜 받는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배움 그 자체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2. 사회 수준의 결정요인

사회적 수준에서 행복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민주주의, 자유, 정치안정, 사회적 규범과 같은 정치 사회적 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정치학 분야에서 진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민주주의(Dorn, Fischer, Kirchgassner, & Sousa-Poza, 2007; Frey & Stutzer, 2000a)와 자유(Inglehart, Foa, Peterson, & Welzel, 2008; Veehoven, 2000, 2003)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민주주의가 행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정치체제 하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국민들의 선호를 보다 더 잘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흔히 해석한다. 또한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 요소로서 국민의 전반적 행복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Veehoven, 2000). 예를 들어 Brule & Veehoven(2014)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핀란드와 프랑스의 행복수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프랑스에 비하여 핀란드 사회의 심리적 자유 수준이(개인이 원하는 바를 심리적인 부담 없이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더 높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는 Sen(1980)이 강조한 삶의 역량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행복방정식에서 개인의 자유가 가지는 역할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정치 사회적 환경의 하나로서 중요한 행복 결정요인으로 연구되는 또 다른 주제는 정치 적 안정성을 들 수 있다. 정치적 안정성이 가지는 중요성의 좋은 예로는 1962년 도미니카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당시 현직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엄청난 정치 사

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도미니카 국민의 삶의 만족도 수준은 10점 만점에 1.6점으로 도미니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Frey & Stutzer, 2002a). 비슷한 예로 Inglehart(2009)는 유럽의 구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가 이루어 지더라도 정치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민주화된 정치체제가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Lelkes(2006)도 1990년대에 상대적으로 낮았던 동유럽 국가들의 행복수준은 당시 그들이 겪었던 정치 사회적 변동에 크게 기인함을 보여주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Di Tella et al.(2003), Pacek & Radcliff(2008a, 2008b) 등도 잘 짜여진 사회안전망이 개인 삶의 변동성을 줄여 행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기존 연구들이 한 사회의 행복수준 결정에 사회적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던 Easterlin 패러독스의 해답을 사회적 신뢰수준의 변화에서 찾는 연구들도 있는데(Fukuyama, 1995; Putnam, 1993), 이들 연구에 의하면 미국 국민들의 정부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신뢰의 상실은 행복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Bjornskov(2008)는 미국의 48개 주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사회적 신뢰 상실과 행복의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사회 전반적인 신뢰의 하락과 행복 간의 관계는 미국 뿐 아니라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는데, Tokuda 외(2010)도 아시아 29개국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의 평균적 국민 행복수준이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한 Hudson(2006)은 유럽 15개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평균적인 행복수준이 정부와 입법, 사법기관 등 공공부문 제도에 대한 신뢰수준에 직접 영향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 정도가 사회적 신뢰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복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Welsch, 2008).

우리나라의 맥락에서 시사점이 있는 연구로는 비교성향과 협력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한데(White & Lehman, 2005),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교성향을 평가하는 최근의 도박 실험은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하여 자기 뒤편 아니라 경쟁자와 비교한 상대적인 뒤편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Kang et al., 2013). 또한 Kim & Ohtake(2014)에 의하면 이와 같이 비교성향이 높은 사회일수록 돈과 지위와 같은 hedonic한 요인들이 중시되고 그에 반하여 전반적인 행복감은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행복 수준이 소득을 비롯한 물리적 환경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를 우리 사회가 가지는 지나친 비교성향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또한 Lu & Argyle(1991)은 서로 돕는 협력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하여 협력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정치 사회적 환경 이외에 물리적인 환경에서 행복 결정요인을 찾는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Montgomery(2013)는 아파트와 같은 획일화된 주거 공간 보다는 녹지와 열린 공간이 포함된 다양성이 보장된 주거 환경에서 거주자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더 높다는 여러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인의 성향이나 사회적 환경 이외에 도시디자인과 같은 물리적 환경도 개인의 행복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러한 물리적 환경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신뢰나 인간관계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통해 매개된다. 예를 들어 녹지와 열린 공간이 삶의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이러한 물리적 환경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와 신뢰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5. 행복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그 함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행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와 같은 행복의 근원에 대한 부분과 행복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와 같은 행복의 성격에 대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고대 그리스 철학의 두 가지 접근인 hedonism과 eudaimonism을 중심으로 현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어떠한 접근을 취하느냐에 따라 행복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의 측정에 관한 문제도 행복을 투입을 중심으로 보는지 결과를 중심으로 보는지에 따라, 또한 결과를 중심으로 본다 하더라도 hedonic한 결과인지 eudaimonic한 결과인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같이 행복의 측정도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측정하려는 내용과 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행복이라는 주제를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의 대상으로서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의 행복 연구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어 왔다.

행복은 기본적으로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따라서 행복 연구에 있어 여러 가지 차원의

개념 중 어떠한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개념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향후 전개될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의 행복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행복의 개념에는 분명 hedonic한 부분과 eudaimonic한 부분이 공존하며, 따라서 연구의 초점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의 명확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측정의 혼란도 피하기 어렵다.

행복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복은 개인이 추구하는 가장 근원적인 가치이자 중요한 목적함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적 성격을 가지는 행복추구권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표면적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면서도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지난 반세기 동안 소득과 부의 축적이라는 목표에 거의 함몰되어 있다시피 했다. 학계와 정부의 정책 담론도 크게 다르지 않아 국민소득 2만불 시대 혹은 3만불 시대와 같은 소득 중심의 비전이 주술처럼 퍼져나갔다. 최근 들어 현실 정치와 행정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행정학, 정책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아직도 행복이라는 주제가 그 중요성에 걸맞는 관심을 얻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행복 개념이 충분히 이론화되어 있지 못하고 그 결과 행복의 측정도 체계적이지 않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것인지 혹은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 행복이라는 주제를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구교준·김성배·윤종현. 2012. “용인 가능한 지역 간 격차와 지역정책: 삶의 역량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3): 173-192.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우창빈. 2013.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정책은 가능한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공정책의 이론, 논란, 가능성과 조건들.” 《행정논총》 51(2): 283-318.
- 이내찬. 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5-40.

- Alesina, A., Tella, R. D., & MacCulloch, R. 2004. "Inequality and happiness: Are Europeans and Americans differ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2009-2042.
- Allport, G.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auer, W. 1976. *China and the Search for Happiness: Recurring Themes in Four Thousand Years of Chinese Cultural History*, New York: Seabury Press.
- Bjornskov, C. 2008. "Social Capital and Happiness in the United States."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3: 43-62.
- Blanchflower, D., & Oswald, A. 2004. "Well-Being over Time in Britain and the U.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 1359-1386.
- Brammer, G., Raleigh, M., & McGuire, M. 1994. "Neurotransmitters and Social Status." In L. Ellis (Ed.),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oeconomic Inequality Volume 2* (pp. 75~92), Westport, CT: Greenwood.
- Brickman, P., Coates, D., & Janoff-Bulman, R. 1978. "Lottery Winners and Accident Victims: Is Happiness Rela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917-927.
- Brule, G., & Veehoven, R. 2014. "Freedom and Happiness in Nations: Why the Finns Are Happier Than the French." *Psychology of Well-Being*, 4: 17.
- Bruni, L., & Porta, P. L. 2005. *Economics and Happiness: Framing the Analysis*, New York: Oxford Univ Press.
- Clark, A. 2003. Inequality-Aversion and Income Mobility: A Direct Test, *DELTA Working Papers*.
- Clark, A., Frijters, P., & Shields, M. A. 2008. "Relative Income, Happiness, and Utility: An Explanation for the Easterlin Paradox and Other Puzz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6: 95-144.
- Clark, A., & Oswald, A. 1994. "Unhappiness and Unemployment." *Economic Journal*, 104: 648-659.
- _____. 1998. "Comparison-Concave Utility and Following

- Behaviour in Social and Economic Sett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0: 133-155.
- Compton, W. C., Smith, M. L., Cornish, K. A., & Qualls, D. L. 1996. “Factor Structure of Mental Health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406-413.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Collins.
- Deci, E. L. 197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 Di Tella, R., MacCulloch, R. J., & Oswald, A. J. 2003. “The Macroeconomics of Happines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5: 809-82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Diener, E., & Lucas, R. E. 1999.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t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213-229), New York: Sage
- Diener, E., Sandvik, E., Seidlitz, L., & Diener, M. 1993.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and Subjective Well-Being: Relative or Absolu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8: 195-223.
- Diener, E., Sapyta, J. J., & Suh, E. 1998. “Subjective Well-Being Is Essential to Well-Being.” *Psychological Inquiry*, 9: 33-37.
- Diener, E., Suh, E., Lucas, R. E., & Heidi, S.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orn, D., Fischer, J., Kirchgassner, G., & Sousa-Poza, A. 2007. “Is It Culture or Democracy? The Impact of Democracy and Culture on Happines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2: 505-526.
- Easterlin, R.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P. David & M. Reder (Eds.).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ssays in Honour of Moses Abramovitz* (pp. 89~126), New York: Academic Press.
- _____. 1995. “Will Rai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27: 35-47.
- _____. 2001. “Income and Happiness: Towards A Unified Theory.” *The Economic Journal*, 111: 465-484.
- Ehrnhardt, J., Saris, W. E., & Veenhoven, R. 2000. “Stability of life satisfaction over tim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77-205.
- Fordyce, M. 1988. “A Review of Research on Happiness Measures: A Sixty Second Index of Happiness and Mental Health.”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 355-381.
- Frank, R. 2005. “Does Absolute Income Matter?” In L. Bruni & P. L. Porta (Eds.). *Economics and Happiness: Framing the Analysis* (pp. 65~90), New York: Oxford Univ Press.
- Frey, B., & Stutzer, A. 2000a. “Happiness Prospers in Democrac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79-102.
- _____. 2000b. “Happiness, Economy and Institutions.” *Economic Journal*, 110: 918-938.
- _____. 2002a. *Happiness and Economics: How the Economy and Institutions Affect Well-Bein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2b. “What Can Economists Learn From Happiness Research?”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0: 402-435.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 Furnham, A., & Cheng, H. 2000. “Lay theories of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227-246.
- Gerdtham, U., & Johannesson, M.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Health, and Socio-Economic Factors: Results Based on Swedish Microdata.” *Journal of Socio-Economics*, 30: 553-557.
- Graham, C., & Felton, A. 2006. “Inequality and Happiness: Insights from Latin America.”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2006: 107-122.
- Hartog, J., & Hessel, O. 1998. “Health, Wealth and Happiness: Why Pursue a Higher 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7: 245-256.

- Haybron, D. 2007. "Philosophy and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In M. Eid & R. J. Larsen (Eds.), *The Science of Subjective Well-Being*. (pp. 17-43), New York: Guilford Press.
- Headey, B., & Wearing, A. 1989. "Subjective Well-Being: A Stocks and Flows Framework." In F. Strack, M. Argyle & N. Schwarz (Eds.),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p. 7-26), Oxford: Pergamon Press.
- Hopkins, E. 2008. "Inequality Happiness and Relative Concerns: What Actually Is Their Relationship?"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6: 351-372.
- Hopkins, M. 1991. "Human Development Revisited: A New UNDP Report." *World Development*, 19: 1469-1473.
- Hudson, J. 2006. "Institutional Trust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the EU." *Kyklos*, 59: 43-62.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e,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_____. 2009. "Democracy and happiness: What Causes What?" In A. Dutt, K. & B. Radcliff (Eds.), *Happiness, Economics, and Politics: Toward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pp. 256~270). Northampton, MA: Edward Elga.
- Inglehart, R., Foa, R., Peterson, C., & Welzel, C. 2008. "Development, Freedom, and Rising Happiness: A Global Perspective (1981-2007)."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264-285.
- Kahneman, D. 1999. "Objective Happiness."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 of Hedonic Psychology* (pp. 3~25),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Kahneman, D., Diener, E., & Schwarz, N. (Eds.). 1999.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New York: Russell Sage.
- Kahneman, D., & Krueger, A. B. 2006. "Developmen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 3-24.

- Kahneman, D., & Riis, J. 2005. "Living and Thinking About It: Two Perspectives on Life." In F. Huppert, N. Baylis & B. Keverne (Eds.), *The Science of Well-Being*. (pp. 285-30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hneman, D., Wakker, P., & Sarin, R. 1997. "Back to Bentham? Explorations of Experienced Uti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 375-405.
- Kang, P., Lee, Y., Choi, I., & Kim, H. 2013. "Neural Evidence for Individual and Cultural Variability in the Social Comparison Effect." *Journal of Neuroscience*, 33: 16200-16208.
- Kesebir, P., & Diener, E. 2008. "In Pursuit of Happiness: Empirical Answers to Philosophical Question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117-125.
- Keyer, C., Shmotkin, D., & Ryff, C.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007-1022.
- Kim, H., & Ohtake, F. 2014. Status Race and Happiness: What Experimental Surveys Tell Us. *Policy Study (2014-01)*,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King, L. A., & Napa, C. K. 1998. "What Makes Life G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6-165.
- Kubovy, M. 1999. "On the Pleasure of the Mind." In D. Kahnema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eing: The Foundations of Hedonic Psychology* (pp. 134~154), New York: Russel Sage.
- Lane, R. 2000. *The Loss of Happiness in the Market Democrac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Layard, R. 2006. "Happiness and Public Policy: A Challenge to the Profession." *Economic Journal*, 116: C24-C33.
- Leikes, O. 2006. "Tasting Freedom: Happiness, Region and Economic Transi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9: 173-194.
- Lu, L. 2001. "Understanding Happiness: A look into the Chinese Folk

- Psychology.”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 407-432.
- Lu, L., & Argyle, M. 1991. “Happiness and Cooper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 1019-1030.
- Lykken, D. 1999. *Happiness*, New York: St. Martin’s Griffin.
- MacGregor, I., & Litter, B. R. 1998. “Personal Projects, Happiness and Meaning: On Doing Well and Being Your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494-512.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 370-396.
- _____. 1971. *The Farthest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Viking.
- McMahon, D. M. 2006. *Happiness: A History*. New York, NY: Atlantic Monthly Press.
- Michalos, A. 2008. “Education, Happiness and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7: 347-366.
- Montgomery, C. 2013. *Happy City: Transforming Our Lives Through Urban Design*, New York: FSG.
- Myers, D.,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 10-19.
- Myers, D. G. 2000. “The funds, friends, and faith of happy people.” *American Psychologist* 55: 56-67.
- Nussbaum, M. 1986.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ssbaum, M., & Sen, A. 1993. *The Quality of Life*. Oxford: Clarendon Press.
- Ogburn, W. F. 1935. “Indexes of Social Trends and Their Fluctu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0: 822-828.
- Ogburn, W. F., & Jaffe, A. J. 1936. “Indexes of Social Trend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1: 776-782.
- Oishi, S., Graham, J., Kesebir, S., & Galinha, I. C. 2013. “Concepts of Happiness Across Time and Cult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 559-577.
- Pacek, A., & Radcliff, B. 2008a. “Assessing the Welfare State: The Politics

- of Happiness.” *Perspectives on Politics*, 6: 267-277.
- _____. 2008b. “Welfare Policy and Subjective Well-Being Across Nations: An Individual-Level Assessment.” *Social Indicator Research*, 89: 179-191.
- Pastinetti, L. 2005. “Paradoxes of Happiness in Economics.” In L. Bruni & P. L. Porta (Eds.). *Economics and Happiness: Framing the Analysis* (pp. 336~34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C., Park, N., & Seligman, M. E. 2005.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Full Life Versus the Empty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 25-41.
- Peterson, C., & Seligman, M. E.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Washington D.C.: APA Press.
- Phelps, C. D. 2001. “A Clue to the Paradox of Happines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45: 293-300.
- Posner, R. A. 1979. “Utilitarianism, Economics, and Legal Theory.” *Journal of Legal Studies*, 8: 103-140.
- Putnam, R.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bbins, B. D. 2008. “What Is the Good Life?: Positive Psychology and the Renaissance of Humanistic Psychology.” *The Humanistic Psychologist*, 36: 96-112.
- Robeyns, I. 2005. “The Capability Approach: A Theoretical Survey.”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 93-114.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London: Constable.
- Ryan, R. M., & Deci, E. L. 2000a.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_____. 2000b.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_____.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Ryff, C. D. 1995.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 99-104.
- Ryff, C. D., & Keyes, C. L. M. 1995a.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69: 719-727.
- _____. 1995b.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719-727.
- Ryff, C. D., & Singer, B. 2000. "Interpersonal Flourishing: A Positive Health Agenda for the New Millennium."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 30-44.
- _____. 2008. "Know Thyself and Become What You Are: A Eudaimonic Approach to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 13-39.
- Sandvik, E., Diener, E., & Seidlitz, L. 1993. "Subjective Well-Being: The Convergence and Stability of Self-Report and Non-self-report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61: 317-342.
- Scitovsky, T. 1976. *The Joyless Economy: An Inquiry into Human Satisfaction and Consumer Dissatisfa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 5-14.
- Sen, A. 1980. "Equality of What." In S. McMurrin (Ed.). *The Tanner Lectures of Human Values* (pp. 257-280), Salt Lake City: Univ of Utah Press.
- _____. 1999. *Development of Freedom*, New York: Knopf.
- Stutzer, A. 2004. "The Role of Income Aspirations in Individual Happiness."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54: 89-109.
- Subramanian, S. V., Kim, F., & Kawachi, I. 2005. "Covariation in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Self Rated Health and Happiness: A Multivariate Multilevel Analysi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 the USA." *Journal of Epidemiol Community Health*, 59: 664-669.
- Tatarkiewicz, W. 1976. *Analysis of Happiness*, Warsaw: Polish Scientific

Publisher.

- Tokuda, Y., Fujii, S., & Inoguchi, T. 2010. "Individual and Country-Level Effects of Social Trust on Happiness: The Asia Barometer Surve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 2574-2593.
- Veehoven, R. 2000. "Freedom and Happiness: A Comparative Study in Forty Four Nations in the Early 1990s." In E. Diener & E. Suh (Ed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pp. 257-288), Cambridge, MA: MIT Press.
- _____. 1996. "Developments in Satisfaction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37: 1-46.
- _____. 2000. "The Four Qualities of Life: Ordering Concepts and Measures of the Good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 1-39.
- _____. 2001.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Not Quite the Same" (Translated in English). In G. DeGirolamo (Ed.), *Salute e qualita della vida (Published in Italian)*. (pp. 67-95), Torino, Italy: Centro Scientifico Editore.
- _____. 2003. *Freedom and Happiness: A Comparative Study in Forty Four Nations in the Early 1990s. Culture and Subjective Well-being*. Chester, NJ: Bradford Book.
- Veenhoven, R., & Ouweneel, P. 1995. "Livability of the Welfare State, Length of Life and Appreciation of Life in Nations Varying in State Welfare Effort." *Social Indicators Research*, 36: 1-48.
- Waterman, A. S. 1993.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Contrasts of Personal Expressiveness(eudaimonia) and Hedonic Enjoy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678-691.
- Welsch, H. 2008. "The Welfare Costs of Corruption." *Applied Economics*, 40: 1839-1849.
- White, K., & Lehman, D. 2005. "Culture and Social Comparison Seeking: The role of Self-motiv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232-242.
- Wiggins, J. S. 1980. *Personality and Prediction: Principles of Personality Assessment*. Menlo Park, CA: Addison-Wesley.